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1주일
제33권 39호(다해) 2013.8.25

[묵상]



그리스도와 부자청년<하인리히 호프만, 19c,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소장>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 초대 받았을까요?
주님과 음식을 나누는 적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렇진 않나 봅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는
사망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이들은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항변해 보지만
"불의를 일삼는 자"라는 호통만 돌아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할 영광이 주어진다 해도,
생명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를 가진다 해도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쉬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처럼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인가 봅니다.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명자 로사, 권순봉 요안나
	(생)엄세종 그레고리오, 엄효정 모니카,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최재웅 & 박수영 안젤라, 유아세례자7명(주보5년참조)
주 일 낮 미사	(연)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유정복 베네딕다, 나성훈 안드레아, 임현기 마르코,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김순성 마리아, 김금점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원종욱 스테파노, 강태람
	(생)이운조 클라라, 박인규 요셉, 이효희 마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6,18-21

화답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5-11-13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 음 루카(Luke) 13,12-3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민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7	230	250
봉헌	257	259	267
성체	We Fall Down	292	290
파견	찬양하세	187	23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결 론

▶ 하느님의 최종적 말씀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임을 의식할 때에, 하느님 말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힘이세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 서문이 우리에게 관상하게 해 주듯이, 모든 존재는 하느님 말씀이라는 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당신 백성 가운데에 머무르시며,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창조물을 지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십니다. 지금 교회는 신랑께서 종말에 나타나실 것을 열렬히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묵시 22,17). 이러한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추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 새로운 복음화와 새로운 경청

122).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경청과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곧 만민을 향한 선교(missio ad gentes)를 계속하고, 동시에 온 힘을 다하여, 특히 복음이 잊히고 세속주의의 확산으로 복음에 무관심해진 나라들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 줍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일깨우시고 열렬한 복음의 선포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변모되었던(사도 9,1-30 참조) 이방인들의 위대한 사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기쁜 소식을 설교하고 전파하도록 따로 떼어 두셨다고 전합니다.(사도 13,2 참조). 오늘도 성령께서는 확신을 지니고 설득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이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 말씀과 기쁨

123).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을수록 우리는 성령강림의 신비가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명작소설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소설을 접했는데, 당시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좁은 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내면적 갈등을 자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1869년 파리 출생으로,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강요한 어머니 아래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좁은 문」은 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 시작한 10대 후반부터 사촌 누이를 사랑하고 불안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도 남자 주인공 제로움은 자신보다 두살 위인 외사촌 누이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둘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지상에서 이를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설 속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신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자는 작품 안에도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소설 「좁은 문」에서의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 아닌 ‘두려움과 징벌의 하느님’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

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태 7,21 참조) 오히려 주님을 어설뜨게 아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꼴찌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탐욕으로 살뜰 몸뚱이는 욕심을 버리고 줄여야 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매 순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머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조우주 가브리엘 ● 조하늘 스텔라 ● 최아린 스텔라
● 김택연 루카 ● 민지영 루치아 ● 민지수 이사벨라
● 민지안 베로니카

● 장소 : 트윈스 아서원 (오후 6시)
● 문의 : 소공동체부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 일시 : 9월13(금)~15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피난도 아씨시 피정센터
- 참가부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정하상바오로&정율리아 ☎(310)780-9055

- 일정 : 9월14일(토) 오전 8시~낮 12시
- 출발지 : LA 월턴극장앞(일서+웨스턴)
- 행사스케줄 : 현장등록(오전7시), 종목(5K, 10K, 휠체어)
시상식축하공연과 건강엑스포(오전10시)
- 참가비 : \$10(10세이하는 참가비 없음)
- 참가신청 : 해피빌리지 ☎(213)368-2607
- 문의 : 백삼위 마라톤동호회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일시 : 9월21일(토)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2040 아테시아, 토론토)
- 성경범위 : 사도행전, 바로로서간 전체
- 문의 : e-mail uykcinhim@gmail.com
- 본당에서 작년에 우수한 배론청년회가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일시 : 9월27일(목) 저녁미사후
- 장소 : 강당
-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흥룡 요셉 반체시오 회장 ☎(310283-5879)

- 일시 : 9월28일 오전 10시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오전 9시30분 전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후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후원 : 미주한인가톨릭방송
- 접수 및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녜스
☎(310)780-0369

● 8월 한달과 레이버데이 연휴인 9월1일주일까지 소공동
체가 봉사하는 친교자리(점심나누기)가 없습니다. 정규
친교점심은 9월8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줄을 서서 순
서를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간혹 무질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르신들과 급
한분들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교무금	강미순 고천용 권오상 금영도 김대우 김성택 김우용 김 욱 김원호 김재영 김정희 김학견 민형기 박상준 박인식 반비오 배태임 서재원 신순철 신철규 안태갑 엄영희 오명섭 이재용 이재정 이현주 최원석 최희숙 황지영 송마이클	성전헌금	강미순 고천용 권오상 금영도 김대우 김우용 김 욱 김원호 박상준 박인식 반비오 신순철 안태갑 이일길 이재정 이현주 최원석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3,760	합계 : \$1,830	
주일미사 헌금 : \$2,686	성모승천대축일 헌금 : \$1,241	감사헌금 : 오보나 대건회	주보광고후원 : \$700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전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새학년도 주일학교 시스템 운영이 전면 바뀌면서 전진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첫모임 : 오늘주일(25일) 오전 10시30분 회의실 -부모 참석
 - 교리수업일시 : 9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강당
 - 문의 : 신동운 벤체시오 전진교리교사 ☎(310)744-5878
- ◆ **주일학교 교리교사 세미나**
- 날짜 : 9월8일(주일) 낮 12시~3시
 - 강의시간 : 오후 1시30분~2시30분(성전)
 - 강사 : Steve Davoren 신부님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두번째주일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1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가톨릭 신앙공부(Catholicism)에 초대합니다.**
전세계 여행을 통해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비디오 신앙 프로그램, 예술, 건축, 문학, 음악을 통해 가톨릭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 대상 : 전신자(10주코스)
 - 일시 :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3시30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시는 스폰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주보에 게재되는 교우업소를 애용합니다!

남가주 소식

- ◆ **테메큘라 꽃동네 가정성화 피정에 초대합니다.**
- 일정 : 9월20일(금)~21일(토) 오후 2시 파견미사
 - 지도 : 정창용 타데오 신부(예수의 꽃동네형제회)
김태영 야고보 수사(예수의 꽃동네형제회)
 - 참가비 : \$80
 - 준비물 : 슬리펍백, 세면도구, 성경, 성가책
 - 문의 : ☎(951)302-3400 전해경 발트로메오 수녀
- ◆ **로올라 영성센터의 영신수련(9개월과정)**
- 일정 : 2013년 9월~2014년 6월
 - 제목 :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영신수련으로의 초대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장소 :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허레지나 ☎(714)606-6670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유현자 안나 483-5476 8/3(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634-9631 8/10(토) 오후 7시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9(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할리웃보울 8/17(토) 5:30pm 윌슨파크 출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홍광선 요셉 999-5808 8/10(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8/9(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8/16(금) 오후 7시 강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8/13(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8/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365-2183 8/1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8(주일) 오후 1시 피크닉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518-1736 8/16(금) 오후 7시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김명재 아가다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메모리얼데이 연휴	
-----------	--

성경공부가 필요한 이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아이와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깊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전해 주려고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제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느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는 것 같거든.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단다.”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신자는 하느님께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러면 신자들의 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그분께 사랑을 청할 수 있고, 그 청에 응답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도 할 줄 아는데, 비신자들은 하느님께 사랑을 청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지. 그것이 차이가 아닐까?”

“큰 차이네요. 맞아요. 확실히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에 대해 이성적 접근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지?”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느님에 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눈에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성경지식은 다소 부족한 듯해도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나?”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말씀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신앙은 맹목적이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이라...”

“심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하느님에 대하여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신부님마다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교회 전체를 보면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널려 있는데도, 세상 일 핑계로 그런 기회를 등한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의 언행이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더 교묘한 속임수인 것 같습니다. 알면 불편해지니까, 몰랐다고 변명할 여지도 없어지니까, 모르고 지내기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 끝에 저는 성경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조동석 베네딕도 / 변호사

안다는 것

올여름엔 무더위로 마음먹었던 독서도 제대로 못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 마음 부담 없이 지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지내면서 문득 ‘안다는 것’은 뭐지? 하고 생각했다. 살아가면서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곰곰 생각해 보지 않고 무심결에 그 사람(사물, 지식이나 진리)에 관해 잘 ‘안다.’고 말할 때가 많다. 과연 ‘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의 시야는 한정되어 있어서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것만 보고 멀리서 보면 그 대강만 보기 때문에 결국 잘 아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산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산을 바라볼 때, 나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숲만 보면 나무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산을 알지 못한 것과 같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 삶 속에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끔 어떤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난 뒤 그 사람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곤 한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닌데도 착각하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도모하여 실수하고, 신뢰를 잃고, 실망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선인들은 ‘배은망덕,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 관해 일부분만 알면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빠져 그 사람의 본모습이나 진실을 보지 못할 때도 잦다.

이른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다. 『논어』 ‘위정(爲政)’편에서, 공자는 자로에게 “유(由)야, (중략)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니라.”라고 가르쳤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말이다. 가슴을 치게 하는 탁견이다. 이 말은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며,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말과 통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는 말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이 말을 썼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리라.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고 한다. 베드로가 통곡한 그곳에 갈리칸뚜(Gallicantu)

즉 닭이 운다는 뜻으로 ‘닭 울음 성당’을 지었는데 오늘날은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라 부른다. 베드로가 예수를 아느냐는 물음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마태 26, 69~75 참조)라고 세번 부인한 그날 새벽의 정경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모른다고 했을까?

◆장영희 요한시인 / 부산대 겸임교수